

© A Note to Korean Library Science Education

試 練 과 變 貌 (下)

韓國圖書館學 教育에 대한 覺書

金 世 翊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1. Library Economy 와 Library Science

1887년 벨빌 듀이에 의하여 콜럼비아대학에 세계 최초의 도서관학교가 설치되었을 때 듀이는 Library Science 라는 말 대신에 Library Economy 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같은 해 독일의 Gottingen 대학에서 칼 디아즈코에 의하여 개설된 도서관학 강좌명은 Bibliothek wissenschaft 라고 하였다.

Bibliothek wissenschaft 라는 독일어는 영어로서 Library Science 라고 번역될 수 밖에 없다. 듀이 자신은 물론 처음부터 도서관학을 뚜렷한 체계적인 학문 즉 과학으로 인식했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지만 그는 조심스럽게도 Library Science 라는 말을 피하고 Library Economy 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객관적 여건이 Library Science 라고 부르기에 상당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와서도 우리는 주위에서 도서관학이 학문이나 또 그걸 공부하기 위하여 4년이나 대학에 다녀야 하느냐 따위의 말을 직접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100년전에 Library Science 란 말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디아즈코가 Bibliothek Wissenschaft 란 용어를 사용했을 당시의 독일의 학계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는 소상히 알 수 없으나 반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도서관의 수천년의 역사를 상기할 때 그다지 심한 이화감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듀이가 The School of Library Economy 라고 명명한 것은 당시의 세론에 대하여 조심스러웠다고 보다 도서관학을 기술제일주의로 삼았던 듀이의 근본사상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심오한 학문적인 아포로오취 보다는 실용주의적 입장 즉 도서관 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듀이의 경우는 The School of Library Science 보다

는 The School of Library Economy 가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듀이가 생애를 바친 사업중에 물론 도서관학과 도서관 발전에 대한 집념과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외에도 미이터법을 주축으로 하는 도량형 통일문제 그리고 영어 철자법의 간소화문제 등을 고려할 때 듀이는 분명히 학자적인 기질보다는 실무적인 패턴이 더 뚜렷한 사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듀이가 분류법에 대한 과학적 연구 도서관 단체인 ALA 조직에 대한 집념과 공헌 사서양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오랜 도제 제도에서 탈피하여 학교교육에서 유자격 사서를 배출하고자한 그의 태도 등을 감안 할 때 듀이로서는 분명히 처음부터 Library Science 라고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다만 그는 그 당시의 객관적 정세에 대하여 조심스러운 결정을 지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 후 The School of Librarianship 또는 The School of Library Science 로 자연스러운 변경이 이루어졌지만 이로써 듀이의 근본사상이 결실된 셈이다. 비록 많은 사전에 아직도 Library 라는 말은 있어도 Library Science 란 용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는 하나 오늘날 적어도 미국에서는 Library Science 라는 용어는 조금도 생소한 인상을 주고 있지 않다.

2. Library Science 와 도서관학

Library Science 는 한국말로 도서관학이 가장 적당한 번역이다. 독일어의 Bibliothek wissenschaft 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해방직후 설치된 한국 최초의 사서양성기관이었던 국립조선도서관학교의 명칭이나 1957년에 연세대학에 처음으로 설치된 본 도서관학과 이름도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아무도 이에 대하여 딴 의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물이해 속에서 또는 의아한 눈초리를 받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면서 그럭저럭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여곡절이 교착하는 가

운데 4개대학 도서관학과에서는 많은 사서를 배출했으며 대학도서관학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소상히 열거한 여러 가지 기관에서 정사서 준사서 그리고 사서교사를 상당수 길러냈다. 그러던 중 지난 몇해 전부터 도서관학과라는 명칭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되었다. 도서관학과라는 용어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찾아 보자는 논의다. 몇차례의 회의석상에서도 토의되었고 또 몇분의 지상을 통한 발언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런 변동도 없고 또 가까운 장래에 변경될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이미 정보과학 혹은 그와 유사한 이름으로 거의 예외 없이 변해버렸다. 우리도 이 명칭을 변경시켜야 하겠는데 그 이유는 다만 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 생각으로는 Library Science 나 Bibliothek wissenschaft 와 도서관학이 언어학적으로는 같은 뜻이면서도 그 말이 주는 이미취나 무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도서관학의 건전한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학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도서관 그 자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학문이며 과학이다.

특일 불란서 이베리 등 영국을 제외한 구라파에서는 Bibliothek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언어학적으로는 우리의 도서관과 다를바 없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에는 서로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한다. 기원전 6, 7천년 전부터 말하자면 인류가 문화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부터 도서관은 있었다. 물론 오늘 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인류가 문화를 창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또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을 때 도서관은 있었고 오래고 긴 역사가 이어가면서 도서관이 인류 문화에 끼친 영향은 아무리 크게 주장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학문이나 과학의 발전에 도서관은 실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해도 조금도 과언일수가 없다. 구라파 사람들이 도서관을 생각하는 태도나 도서관을 보는 눈이 바로 이런 점에서 결정되고 있다. 서양 정신의 심볼이라고 할수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학교를 세우고 천하의 영재를 교육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가장 정신을 쓴 것이 도서관이였음을 상기 할 때 구라파에서 말하는 Bibliothek 는 격조높은 시설이요 기관이다. 이런 의식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Library 란 말도 같다. 특히 근대 시민 도서관의 발상지인 미국의 경우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폭 넓은 기능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 스퀘마켓트가 있든지 없어서는 않될 것이 바로 도서

관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도서관이란 말이 주는 이미취는 어떤가 얼마전만 하더라도 도서관이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도서관학적 용어로 말하면 불견열람자의 장소라는 인상이 짙다. 이것은 상당히 오랜 연월을 거치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다.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이 전술한 구라파적인것 영, 미적인 요소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도서관에 대한 부수적인 개념이였을 뿐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의사결정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몇년이고 도서관에 앉아서 두터운 의서를 뒤지고 있었던 모습, 고등고시나 대학입시 낙방생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그들에게는 서고에 있는 장서 같은 것에 아예 관심도 없고 다만 그 자리와 공부하는 분위기 놀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였다. 입관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긴긴 줄을 짓고 차례를 기다리다가 약간의 돈을 내며 마치 사찰에 들어가는 입장료 내듯이 돈을 내는 곳이며 도서관 직원들의 관료적인 태도 그것은 친절이나 봉사와는 거리가 먼 풍경이였다. 이러한 현상이 오래 계속되는 동안 우리 도서관이 주는 이미취가 잘못 고정되어버렸다. 도서관학과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복잡한 표정을 짓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데에 있었다. 도서관의 이와 같은 풍토는 물론 지금은 다르다. 상당한 발전과 어떤 유형의 도서관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워 놓기에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요한다. 도서관의 그릇된 인식이 너무도 오래 계속되고 누적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조시대의 그것은 사정이 다르다. 선비들이 학문하는 장소에서 상당한 문화적 의미를 지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주먹만한 특권층의 전유물이였기에 시민의 장소는 될 수 없었다.

Library Science 와 도서관학은 같은 의미이면서도 사회적 의미가 다르다. 한국의 도서관학과와 명칭으로서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정보과학과 도서관학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는 인식되지 않지만 문헌정보를 다루는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과학이 독자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도서관학의 교과 과목과 그 내용이 달라지고 보충되어지는 이 때에 우리가 도서관학을 고집 할수가 없게 되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도서관학과 졸업생들의 취업상황을 보면 의외로 그 활동범위가 넓다. 도서관 뿐만 아니라 각 방송국, 문서를 많이 취급하는 관공서 회사 그리고 비서로서도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도서관 일변도의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일 같지 않다.

3. 문헌정보학과와 정보학과

도서관학과라는 명칭이 적당치 못하다는 전제에서 그 이름을 고칠 때 대개 세가지 안이 있는 줄 안다. 그 하나는 문헌정보학과며 아마 이것이 가장 유력한 안인것 같다. 그 다음이 정보학과 또 하나는 이미 17년이나 사용되고 이제 겨우 사회적으로 보편화 될 단계에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름을 고치는 것은 교각살우의 격이며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보다 중요하기에 도서관학과 그대로 하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정보학과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도서관학과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의견은 앞에서 누누히 말한 바에 따라 적당치 않고 문헌정보학과라는 용어는 도서관학을 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모색한다는 뜻에서는 수궁이 가지만 정보발생이다, 정보유통이 문헌에 의하는 것 외에도 허다하며 그 미디어 또한 그 수가 상당하다. 도서관이 주는 인상이 늘 문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우리는 문헌의 가치를 조금도 경시 하지 않으면서 그외의 미디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보전달의 수법과 방법이 문헌이외에는 장차 놀랄 정도로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문헌정보라는 한 정적인 용어를 쓰는데 주저 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도서관학은 문헌정보 뿐만 아니라 비문헌정보 처리에 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이 요청된다고 믿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이 문헌에 의한 정보다. 장래에도 문헌 정보가 정보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할 것이 분명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수없이 많이 있는 정보 또 수없이 많이 생산되는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제일차적인 사명으로 삼고 있는 이상 문헌정보의 가치는 결코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인쇄된 문헌만이 정보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포괄적인 의미의 정보과학과로 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정보라는 말이 주는 인상이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으나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인것 같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정보사회니 정보처리니 수출해보니 하는 말이 보통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기우는 불필요하다. 본시 information 을 정보라고 번역한 것은 일본사람인듯 한데 그러기에 일본의 경음대학에서도 똑 같은 고충 때문에 도서관·정보과학과라고 길고긴 이름을 부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문방송학과 같이 길고 두가지의 개념을 한데 묶어서 부르는 예도 있기는 하나 도서관정보학과는 너무 길고 긴장감이 없다. 미국에서 이런식으로 부르는 학교가 많지만 우

리나라 말로서는 너무 길고 산만한 인상을 준다.

좀 대담한 듯하나 정보과학과로 하고 영어로는 Department of Information Science 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도서관학의 명칭을 바꾸어야 할 때는 왔다. 이것은 우리의 내부적인 사정도 그렇고 외국의 경우를 감안해서도 그렇다. 다만 어떤 절차로 바꾸느냐가 문제이다. 도서관학에 대한 인식을 세심하고 또 새로운 경지를 추궁해야 할 이 시점에서 되도록 빠르게 무리없이 이 일을 처리해야 하겠는데 사실 그렇게 용이한 일 같지가 않다. 대학의 학과의 이름을 변경할수 있는 것은 우리들 라이부라이언이 아니라 학교 행정담당자이며 문교부 당국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행정담당자나 문교부가 이와 같이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볼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학과의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열변을 토한다거나 지상에서 필봉을 구사해도 그것은 필경 이불쓰고 만세부르는 격이 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란 세가지 단계가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통일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문제는 대학학사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우선 4개대학 도서관학과 교수협의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4개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만장일치의 의견의 합의는 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각 대학 도서관학과 안에서의 의견의 조절도 쉬운일 같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도서관학과란 이름이 어느 면으로 보나 적당치 않다는 점에는 대개가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떻게 변경하느냐는 문제는 토론을 거쳐서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문헌정보학과로 하거나 정보과학과로 하거나 또는 도서관·정보과학과로 하더라도 그 어느 것도 현행 도서관학과 보다는 낫다. 그렇게 우리의 의견이 조절되고 결정되면 각 대학 행정 담당자에게(총장) 4개대학 도서관학과 교수협의회 의 이름으로 공동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안을 받은 4개대학 총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긍정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동협의체로서의 실득과 노력이 요청된다. 그와 동시에 도서관협회나 도서관학회에서 만일 이런 의견을 받아 드릴수만 있다면 문교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학과명의 변경은 대학당국과 문교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고 그 중에서도 문교부의 행정적 조치가 더 강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몇일전에 어느 지방 국립대학에 들렀을 때 그 국립대학에서 문교부에 도서관학과 신설을 신청했다고 하기에 기왕이면 그런 기회에 정보과학

과로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한 일이 있다. 지방에 있는 국립이나 사립대학에 도서관학과를 설치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도서관의 전국적인 분포 조절과 그 수준의 평준화가 그 나라의 도서관 발전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 학과 이름을 도서관학과로 하지 말고 정보과학이나 문헌정보학과로 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익할 것으로 믿고있다.

4. 새로운 커리큘럼 編成의 基本立場

도서관학과가 정보과학과 문헌정보학과로 그 이름이 변하기 때문에 교과과정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학과명이 어떻게 되든 필요할 때 커리큘럼은 변경되는 것이며 또 그동안 많이 변해왔다. 문제는 교육내용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령 참고봉사라는 과목을 강의하는데 있어서 교수나 피교육자의 능력이나 사상에 따라서 그 학문적 수준이나 그 방법론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처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면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대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대학 강의의 장점이며 동시에 단점일수도 있다. 어느 중견 라이브리언이며 또 도서관의 책임자는 이런 말을 나에게 한 일이 있다.

「우리나라 4개 대학 도서관학과를 하나로 통일하여야 하겠다. 우리 도서관에 와서 일하는 4개 대학 졸업생들의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며 기초적인 기술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약간 극단적인 말이지만 도서관 실무 책임자로서는 느낄 수 있는 당연한 말이다. 도서관학 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고 도서관 현장에 나가서 빨리 적응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으면 될줄 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도 관계가 있다. 어떤 수준의 도서관에 가서도 어떤 유형에 도서관에 근무해도 또 도서관 업무의 어느 부문에서 일을 하더라도 충분한 기초적 능력을 발휘하고 적응해 나가면서 창조적인 일을 할수 있어야 한다. 대학 도서관학과 학부과정에서는 그

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에서 그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A. 도서관에 대하여 충분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즉 도서관의 문화사적 의미나 도서관의 사회학적 기능에 대하여 하나의 뚜렷한 사상의 소유자로 길러내야 할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과목이어야 한다는 것은 지면이 허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학교에 대하여 간여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칙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이겠다.

B. 합리적인 기술을 습득시켜야한다. 도서관 봉사에서 기술이 불필요한 부서는 하나도 없다. 다만 일반적 과 구별되는 기술부분에서 적어도 아마추어리즘에서 탈피해야 한다. 여기에는 분류나 목록 뿐만 아니라 색인이나 서지 초록까지의 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학교시절에 실습 훈련 과정에서 충분히 습득시킬 필요가 있다. 도서관 학과 졸업생이 받는 오해중의 하나는 다른과를 졸업한 사람과 도서관에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이다.

C. 문화인 교양인이어야 한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은 대체로 교양인이며 인텔리겐차라들이다. 사서가 늘 상대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문화인들이다. 그러기에 우리도 문화인이며 교양인이어야 한다. 책에 대해 많이 알아야 하며 문화적 센스가 예민해야 한다. 도서관학 교육의 어려움이 이런데에도 있다.

D. 정보과학 분야의 확충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당연히 정보과학분야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에 대하여도 충실해야 하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공업화 과정이 상상보다 그 템포가 빠른데 도서관이나 정보센터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공헌하기 위한 방법이 끊임없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는 도서관이 가지는 전통적인 가치를 그대로 유지 한채 닥아올 세대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학제변경에 따라 학교마다 직면하는 커리큘럼 편성에서 위에서 말한 몇 가지 기본 요소가 고려되기를 바란다.

(19面에서 繼續)

키기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새로운 지도방법 및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우리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과 교수들 모두의 시간을 절약하고 있다. 도서관의 체계적인 연구로, 사서직 학교들은 직업의 지식 근원을 더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실제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세미나, 연구집회 및 강습회의 증가로 도서관학교는 현직 종사자들에게 현재의 발전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도서관 학교는 정

책 및 기준설립과 자료분담을 위하여, 협동적인 노력으로 그들간에 통신수단을 설치하려 하고 있다. 도서관학 교육자들은 국제관심에 초점을 둔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그들의 교과과정과 학생들 사고의 한계를 없애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교육학교의 발전안에,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 모든 국가가 사서직의 진보에 참가할 수 있는 동등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법제제적인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다.